

편안한 파스텔톤에 격렬한 사유 담아

28 December, 2015 | 이경택 기자

편안한 파스텔톤에 격렬한 사유 담아

김홍주 국제갤러리서 개인전

■ “무슨 의미나 이념을 부여하려고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고 즐기세요.”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김홍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네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 40여 년간 작가가 발전시켜 온 다양한 회화적 기법과 방식을 총망라한 신작 13점이 선보인다.

그동안 김 작가는 그림, 끈 그리기에 대한 한계와 욕망을 다루어왔다. 그의 작업방식은 ‘무

엇을 그리는가’ 보다 ‘그리기’라는 행위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며 발전했다. 이 같은 태도는 “나의 사고가 그림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림들이 내 사고를 결정해 간다”는 작가노트(1990년 6월)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입체감, 질감, 명암, 깊이가 결집되어 풍경이나 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불명의 형상으로 그려진 추상시리즈에서 작가의 그 같은 생각이 반영돼 있다. 일부 작업들은 마치 벽지의 무늬와도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작가는 이를 ‘묘사를 포기한 세밀화’라고 칭한다. 구체적인 세부 묘사는 제한돼 있지만 인



내를 요하고 체력을 고갈시킬 정도의 장시간의 ‘그리기’ 행위가 그림 속에 담겨 있다. 구체적인 형상은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없지만 염두에 두고 그린 대상은 있다.

윤곽이 달항아리처럼 생긴 그림(사진 가운데)에 대해 김 작가는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그린 것이라고 했다.

전민경 국제갤러리 대외협력 디렉터는 “이번 전시는 ‘엄청난 노력으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그림’ 이자 거시적으로는 파스텔 톤의 편안한 이면에 격렬한 붓질의 축적과 사유를 담고 있는 김홍주 작가의 회화에 대한 도전을 목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택 기자